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출구전략

□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월 24일부터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.5%p 인상한다고 발표함.

- 지난 달 20일 지급준비율을 0.5%p 인상한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인상이며 이로 인해 중국 대형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이 사상 최고인 19.5%를 기록함.
- 이번 지급준비율의 인상은 중국의 성장률이 10%를 상회하고 소비자 물가지수(CPI)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데 기인함.
 - 인민은행은 지난 8일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하여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0.25%p 인상한 바 있음.

□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은 인플레이션과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그 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, 반대로 해석하면 더 강도 높은 출구전략의 실행에도 견딜만한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함.

- 계속되는 중국의 출구전략 실행 배경에는 과잉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내포되어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급준비율 인상을 선택함.
 - 금리인상의 방법과는 별도로 지급준비율을 높임으로서 은행을 통해 직접 유동성을 흡수하고자 함.
 -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가 연속적인 금리인상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효과면에서는 금리인상과 차이가 있어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.
- 새해 들어 금리인상과 두 번의 지급준비율 인상이 이어지면서 향후 더욱 강도 높은 출구전략의 실행이 전망되며 이러한 방법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유동성 흡수와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.

(China's Reserve Requirement Ratio, Wall Street Journal, 2/22)